

News

금리인상·흥국생명 등 후폭풍에 국내은행 부도위험 지표 ↑

연합뉴스

국내 4대 금융지주의 CDS프리미엄 평균 75bp(100bp=1%포인트)로 집계
작년 말 대비 3배 올라...국내 금융시장 신뢰 하락 영향

중기 대출금리, 9년 만에 최고치 “흑자기업도 무너질 판”

부산일보

9월 기준 4.87% 오름세 지속, 이자부담 1년 전보다 13배 커
대출잔액도 231조 원 이상 증가, 레고랜드 사태 탓 자금조달 난항

내년 ‘이자잔치’ 쉽지 않다...하반기부터 매달 이자비용 ‘2조’ 발생

이코노미스트

정기예금 1년 만기 도래 시점 이자비용 급증 우려
5대 은행 9월 정기예금 46조 ↑ ...매달 증가 규모 확대 중

선불 충전금에도 이자...하나은행, 네이버페이 통장 출시

한국경제

100만원까지 금리 최고 4%, 지난달 예고했던 것보다 1%포인트 더 높아짐
간편결제 플랫폼의 선불 충전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최초의 금융상품, 선착순 50만명에게 판매

흥국생명 RP발행... ‘영구채’ 예정대로 상환한다

서울경제

콜옵션 '연기→행사' 급선회...외화채권시장 급한 불 껐다
금감원장 '안정'에 강한 의지, 4대銀이 4000억 규모 RP 매입

車보험료 6개월만에 최대 1%초반 내릴듯

동아일보

자동차보험료가 6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
손보업계,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계획

이복현 금감원장 “단기간 ELS 대규모 손실 없어...증권사 점검”

뉴시스

이 원장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"모니터링 강화"
ELS 내후년부터 만기 도래...낙인 가능성 ↓

지난주 증권사 CP·전단채 5조1천억 발행...금주 만기 3조9천억

연합인포맥스

지난주 21개 증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(CP) 및 전자단기사채(전단채) 규모 총 5조653억 원
증권사 지난주 만기 CP 및 전단채 총 3조5천950억 원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